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온 세상이 감함하여서(찬96/새84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노송남 집사 2부/다무라고조 장로 3부/박세한 집사 4부/최의영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축복하노라(작곡 신상우)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시편 1:1-6 .....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8:1-26

말씀 Message ..... 1, 2, 3부 ..... Rev. Tae Heon Jo 조태현 목사

오직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23) 나무에서 사람으로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말씀 앞에서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 Rev. Tae Heon Jo 조태현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 하나님 손 안에 In God's Hand



조태현 목사 / Rev. Tae Heon Jo

새벽은 춥고 한낮은 뜨거운 환절기입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경험하는 이 낯선 기후에 온 가족이 적응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나나 다를까 둘째인 희은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서 폐렴 진단을 받았고, 조금 진정될 즈음부터 첫째 희건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가니 첫째는 중이염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집에는 쿨룩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해열제와 항생제에 지친 아이들의 짜증과 더불어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한 온 가족은 점점 예민해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첫째의 기침이 유독 심해지더니 결국 저녁 먹은 것을 다 토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고 싶어도 기침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아내를 등 돌리며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자, 이제 아빠가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그날은 유독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해서 뭐하나. 결국 4-5일은 밤잠을 설치고, 억지로 약을 먹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고생할 만큼 해야 끝날 일인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순간 올라온 비뚤어진 감정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힘든 밤을 보낸 다음날, 희건이는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기침만 하더니 열이 나면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성 경련으로 응급실에 간 경험이 있어 그제야 겁이 덜컥 난 저는 아침에 대충 지나갔던 큐티책을 다시 펴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볼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전8:16-17)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이런 상황은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던 경험이 어느새 교만이 되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전8:13)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아파야 깨닫고 회개하는구나!’ 말씀 앞에 눈물이 앞을 가리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날은 미국에서 처음 맞이하는 희건이의 다섯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 이니라.”(전9:7) 아내에게 말씀에서 깨닫고 회개한 것을 나누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희건이를 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픈 소식을 들은 공동체 지체들이 보내주시는 감동적인 약과 음식을 먹으며 조출하지만 감사와 기쁨이 있는 생일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피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전9:1) 아멘.

It is that time between seasons, when it's cold at dawn and hot at noon. My family is struggling to adapt to this unfamiliar climate that we are experiencing since first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As you would expect during this kind of weather, our second, Hee-eun, had been coughing, and was later diagnosed with pneumonia. But as soon as she began getting better, our firstborn, Hee-geon, got a fever. Having similar symptoms we took him to the hospital, where we found out he had an ear infection. During the past week, the house was ringing with their coughing. Not to mention their agitation and lack of sleep from the exhaustion of antibiotics and fever-reducing medicines. The whole family was getting quite edgy. The night we came back from the hospital, our first one's cough got so bad that he vomited everything he had for dinner before he was finally able to lie in bed. My wife patted his back and prayed for him as he continued to cough while trying to fall asleep. She then turned to me and said, "Now, Daddy, please pray for him." But that moment, I had a strange feeling. "What's the point of praying? After these past four or five rough nights, force-feeding them medicine, driving their fever up and down, they are bound to get better, so what's the use?" Thinking back about it now, it was extremely immature revealing such a treacherous heart. I ended the night with a shallow prayer just to go through the motions.

As expected, the next day after another difficult night, Hee-geon coughed all day and couldn't eat at all, and became listless with another fever. I recalled having gone to the emergency room with febrile convulsions, so I was terrified. I went back to read the QT book that I had just glanced over earlier that morning. "When I applied my mind to know wisdom and to observe the labor that is done on earth—people getting no sleep day or night— then I saw all that God has done. No one can comprehend what goes on under the sun. Despite all their efforts to search it out, no one can discover its meaning. Even if the wise claim they know, they cannot really comprehend it." (Eccles. 8:16-17) All this time, I thought while raising my children, "Okay. This is how to get through 'this', and that is for when you do 'that'." It had now become arrogance. I had witnessed how hard-hearted I became as I failed to seek God in prayer. "Yet because the wicked do not fear God, it will not go well with them, and their days will not lengthen like a shadow." (Eccles. 8:13). 'I did not fear God! Did my children need to suffer and agonize like this in order that I realize this and repent?' My eyes were bleary with tears as I cried out in repentance.

Coincidentally, the next day, Hee-geon would turn 5 and it would be the first birthday we celebrate in America. "Go, eat your food with gladness, and drink your wine with a joyful heart, for God has already approved what you do." (Eccles 9:7) I shared this new understanding with my wife and lamented how sorry I was. Embracing Hee-geon, I earnestly prayed to God. And we were so moved by those of our community, who heard of their illness and sent medicines and food so that the children were able to enjoy a modest but happy birthday. "So I reflected on all this and concluded that the righteous and the wise and what they do are in God's hands, but no one knows whether love or hate awaits them." (Eccles 9:1). Amen.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조태헌 목사

# 오직 시편 1:1-6

## 1.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1절)

- 1) ( )를 따르지 아니하며
- 2) ( )에 서지 아니하며
- 3) ( )에 앉지 아니하고

## 2.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무엇을 합니까?(2절)

여호와와 율법을 ( )하여 그의 율법을 ( )로  
 ( )하는도다.

## 3. 시냇가에 '이식'된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3절)

- 1) ( )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 2) 그 ( )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 3)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 )하리로다.

## 4.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4-5절)

- 1) ( )을 견디지 못하며
- 2) ( )에 들지 못하리로다.

적용하기



■ 적용찬양: 말씀 앞에서

베델 사역 현장 스케치(1)

# 해프닝과 보람된 현장



2022년 예배가 정상적으로 오픈되면서 정말 많은 새가족들이 오십니다. 한 주에 평균 다섯 가정 이상 오시니 코트 야드에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새가족 교우들을 맞이할 때 얼굴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담담하게 들어오시는 새가족인듯한 얼굴을 발견하고 능글능글하게 다가가서 공손하게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몇 번째 오시나요?" 여쭙더니 "20년째 교회 나오신다"고 하시네요. 저는 아직 떨었다고 생각하며 역시 사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새가족팀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눈썰미는 달인의 경지입니다. 여러 교우 틈에서 섞여 오시는 새가족을 매의 눈으로 용하게도 가려내십니다.

오늘도 얼굴 기억은 힘들지만 그래도 마냥 좋습니다. 각 예배 때마다 주차장에서부터 설레는 모습으로 또는 기대에 찬 모습으로 차분히 걸어오시는 새가족들의 행렬을 보면 힘이 납니다. "어서 오세요~참 잘 오셨습니다!!!"

김병인 장로(새가족)



지난 주일 교회 주차장에서 다급하게 여집 사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집에 가스레인지가 끼지 않고 예배당으로 오셨다며 함께 집까지 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택으로 교회 미니벤으로 모셔드리려 할 때 집 옆길에 차가 있다고 다시 비전 주차장으로 가달라고 하셨고, 집사님의 차에 뒤따라 택으로 출발하며 최대한 안전시켜드리고 안전하게 운전하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동하며 집까지 가는 길 안전운전을 지켜주시고

무탈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15분가량 달려 도착해 황급히 집에 들어가 보니 가스 불은 켜져 있었고 솔은 까맣게 타서 연기는 자욱했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화재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안도와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그동안 큰 사고 없이 맡겨주신 주차 사역을 신실하게 섬겨주시며 동역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섬기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길수 장로 (주차)



무익한 종으로 장로로 임직하며 맡은 외부 카페. 매주 김밥을 만들어야 되는 사역이 낯설고 '김밥의 기억' 자도 모르는 채로 시작한 사역이라 걱정과 고민이 컸음을 고백합니다. 열 분의 귀한 사역 권사님, 집사님들과 토요일은 재료 준비로, 주일은 이른 새벽부터 대량의 김밥과 무수비를 만들어야 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고, 육체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의 일은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팀을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말을 믿고 따라와 주신 저의 팀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시던 권사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숙달된 조교처럼 불평 없이 때로는 '하하호호'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른 새벽부터 생얼로 나오셔서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그 모습보며 제가 왜

눈물이 나는지요. 특별히 토요일과 주일 연속으로 나오셔서 피곤해 보이실 때, 제 마음도 잔해지며 많이 부족한 제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빛진자의 마음을 갖고 임직한 부족한 장로로서 이제는 저의 김밥 권사님들과 자원해서 섬겨주시는 귀한 집사님들, 장로님들, 야외 카페에서 그 더운 여름 묵묵히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또 다른 빛을 진 사역 장로임을 고백하며 그 빛을 조금씩 갠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분별하며 험한 십자가 붙들고 한 걸음씩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임동역 장로(외부 카페)



처음 식당 사역팀을 맡았을 때 앞으로 일 년 동안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3개월이 남은 지금에서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권사님들이 나오시면서 저희 팀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걱정하고 염려하였지만, 오히려 팀이 하나가 되고 더 열심히 섬기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주 식당 사역 권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드시며 좋아하시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봉사자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번은 어떤 분이 오셔서 음식이 맛이 있어서 세 번이나 드셨다고 다소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에 식당 사역 권사님들이 우리가 준비한 음식이 그렇게 맛이 있는가 반신반의하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근 장로(식당)





교육부 - 소망부(1)

# 새로운 세계로 달려갑니다

소망부 토요학교를 통해 사랑으로 부으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합니다.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토요학교는 찬양과 체조, 예배를 시작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초빙되어 알찬 수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소근육과 대근육의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단조차도 세심하게 고려해 준비해드립니다. 귀한 봉사자 선생님들을 토요학교에 보내주셔서 아이들과 사랑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만들어주심에 감사하고 베델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애부모에게 설 시간을 드리는 것이 토요학교의 큰 목적이자 취지라고 하신 전도사님은 매주 부모님들이 아이들 픽업 때 늘 웃는 얼굴로 반기시며 잘 쉬었는지 물어봐 주십니다. 토요학교를 통해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헌신과 수고로 섬겨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안겨주실 은혜가 약속처럼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수많은 은혜를 드리고 나눠줄 수 있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6:38)" 끝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영혼들을 베델 소망부에 더욱 많이 보내주셔서 사랑의 주님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고 만나게 되길, 그리고 지금처럼 늘 감사와 기쁨이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

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김인서 집사

아이들이 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부 전도사님은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을 토요학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말씀증거에 힘쓰시고, 아이들은 친구들과 말씀 듣고 찬양하는 선물같은 귀한 하루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서 문턱 하나 넘어가는 데도 수없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교실로 뛰어 들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수없이 시원한 물을 원하는 아이한테 매번 물을 떠다주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없이 이런 섬김이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와 소통을 위해 아이의 무한요구를 들어주시면서도 조심조심 다가가는 선생님의 배려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에 덩달아 함박웃음 짓는 선생님 표정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모든 재료와 밑작업들을 계획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손길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운동, 아트, 뮤직 등 아이들에게는 신세계입니다. 바라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

시며, 아프고 불편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부 토요학교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전인경 집사

소망부 교사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쭙보았습니다. 제가 과연 소망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소망부 아이들을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소망부 친구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겠니? 기뻐 어깨가 되어줄 수 있겠니? 제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소망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기뻐 뛰며 반겨주는 친구들, "너무 귀여워!"라고 말해 주는 친구들, 헤어질 때 내 손을 꼬옥 잡아주는 친구들로 제가 오히려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뿐인데 제가 소망부 친구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소망부 토요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으로 은혜의 시간을 보냅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시작하여 만들기 활동, Gym 활동, 함께 기도하며 식사하는 시간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소망부 토요학교는 많은 분들의 재능 기부와 섬김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돌봄,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코치 집사님의 축구 수업, UCI 대학생들의 사물놀이 수업 등 소망부 친구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라는 하나님의 마음 전달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소망부 토요학교 교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홍희진 교사(소망부)

교육부 - POP

# 경이롭게 만드신 생명

2016년부터 베델 교회학교에서는 해마다 성경적 성교육(Purity)을 통해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지를,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했던 Purity 프로그램을 다시 In person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2022년에는 76명의 학생과 26명의 선생님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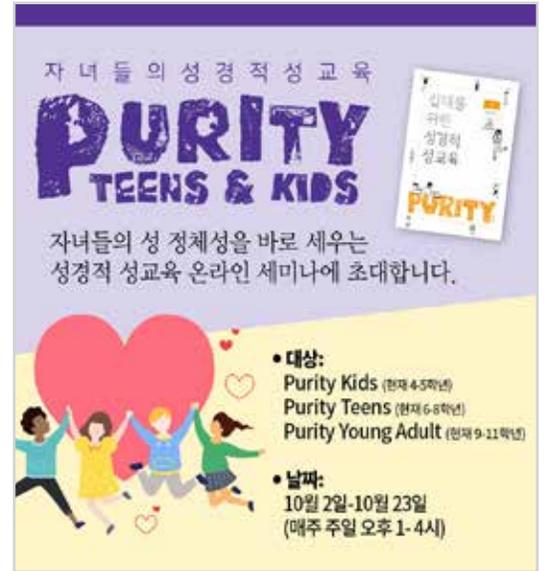
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마음에 성경적 성교육이 가득 차 있어야 잘못된 성 가치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자녀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아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20 말 씀처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 자녀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정체성이 혼동되는 가르침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남자와 여자)은 가짜이며, 나를 Test 해보면서 알아가는 것이 진짜 Gender(성향)라고 학교에서 배우게 됩

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주위에는 YouTube, 인터넷, TV, 음란 사이트, 만화, 영화로, 또한 난잡한 공립학교 성교육으로 잘못된 성적인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녀를 각각 다른 성으로 정체성을 갖게 하신 목적을 배우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하는 것이 명령이며 축복임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2022년에는 학년별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나이에 맞도록 세분화 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Purity Kids(5-6학년), Purity Teens(7-8학년), Purity Young Adult(9-12학년),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경이롭게 만드신 생명, 성숙한 믿음의 여인과 남자, 데이트의 경계선, 예수님의 피로 산 몸매 대해 훈련받음으로 베델

의 자녀들이 말씀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결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진아 전도사



베델 선교 - T국

#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곳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셨던 T국에서 단기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T국은 서아시아와 유럽 발칸반도에 걸친 국가로 인구는 약 8,434만 명이고 회교도는 99.8%이고 기독교인은 불과 6,000명(0.0075%)으로 아직도 기독교 성도들이 박해받는 땅입니다.

첫날은 이란을 탈출해 빈곤하게 살아가는 난민 가정인 부부를 심방하였습니다. 부부는 2년간 리더십 훈련을 마치고 선교사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 VBS를 그 지역 청년들까지 참여하여 하루에 세 번씩 진행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

째 날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회를 방문 하였으며 그들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넷째 날은 T국 성도들, 난민가정, 기니비사우 유학생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슬람의 맹주국이라는 T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각국에서 성도들을 옮기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오하신 계획에 놀랐습니다. 다섯째 날은 흑해의 S도시에서 12세기부터 정통 그리스 교회로 사용된 발굴지에서 교회 건물 잔해들을 보았는데 돌에 선명하게 새겨진 십자가의 문양을 보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동하였습니다. 도시의 북쪽에서는 우크라이나 · 러시아전쟁으로 혼돈의 상황이지만 S도시의 해안은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도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커다란 영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날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선교팀이 영어찬양과 율동을 올렸고 언어는

다르지만 다국적 성도들과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잠시 함께하면서 앞으로의 삶은 선교에 동참하거나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에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베델성도들이 연합하여 이슬람국가의 복음화를 위하여 Go Together for Bethel Mission in Islamic World. Amen!

허준수 집사



1. 흑해 지역의 복음화와 언어권별 가정교회 개척을 위하여
2. 이슬람 지역 청년과 외국 유학생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하여
3. 주일 국제연합 예배의 확충을 위하여
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 총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Justin Kim 목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경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밀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오경희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10월 수요 예배

##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간혹 등산할 때, 저 높은 산에 올라가 수평선에 보이는 바다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참 크다"고 깨닫게 됩니다. 더 높이 갈수록 더 멀리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 주의를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더 깊이 말씀으로 나아가 더 높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 "Do You See What I See?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1강은 "하나님의 핑거 프린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기에, 태초부터 영원히 그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것에 나타납니다. 혹은 예수님의 계보에도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제2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Signature"입니다. 모든 중요한 서류는 본인의 signature로 확인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라고 잠언 2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서가 복음의 메시지이며 성경 전체 안에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을 찾아 발견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이번 수요 예배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쁨을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박성권 목사님과 함께하는 10월 수요 예배- 수요일 오전 10시에 현장으로 나오시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0,11월)	10/30: ①부-마상오	②부-박길상	③부-박종민	④부-최재환
	11/6: ①부-박선화	②부-박성규	③부-배진용	④부-김수빈
	11/13: ①부-박영덕	②부-박원규	③부-서우석	④부-김유리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0,11월)	10/29: 윤대호	11/5: 윤성식	11/12: 이봉재	11/19: 이명환
	강단꽃(10,11월)   10/23: 서동하, 최호경	10/30: 김중곤, 김창남	11/6: 김영신, 김진환	11/13: 이주은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한우광(한외과), 간호사-김현옥      다음주 | 의사-김혜선(소아과), 간호사-김선미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경),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베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수요 예배** 수요일 오전 10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박성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7면 참고)

◆ **성인 세례/입교식 안내** 성인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13일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수료해야 하며 CIM, BYM, 예살, JM은 각 부서에서 교육과 문답을 진행합니다.  
세례식 및 입교식 일시/장소: 11월 13일(주일) 2부 예배 시, 본당  
신청 기간/방법: 10월 16일(주일)-29일(토),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 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 CIM 이상)  
교육 일시/장소: 10월 30일(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 2층 컨퍼런스룸  
문답 일시/장소: 11월 6일(주일) 오후 12시 30분, 목회자실  
문의: 최규덕 장로 (949)838-4445, 조태현 목사 (949)431-8440

◆ **셀목자 정기모임**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셀목자 정기모임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 정기 모임은 11월 5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열리며, 이번주 토요일(29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성도님들의 감사의 사연과 음악이 어울어진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022년 한해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셀이나, 팀 또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일시: 11월 20일(추수감사주일) 오후 4시 30분, 베델교회 코트야드  
응모 기간: 10월 30일(주일)부터 11월 6일(주일)까지  
응모 방법: 교회 앞 부스에 준비된 엽서에 기록하여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이메일 hongsikkim@bkc.org 로도 응모 가능합니다.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Samaritan's Purse Shoe Box 캠페인** 매년 가난 가운데 고통하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hoe Box는 교회학교 check in 부스에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선물로 준비된 box는 주중에 교회 사무실이나 주일에 같은 장소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모집기간: 10월 30일(주일)-11월 20일(주일)  
문의: 최병용 집사 (714)586-6703

◆ **레위기도, 골방기도, Do Dream 기도사 모집** "이제부터, 다시, 기도! Just do it!"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를 모집합니다. 코트야드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교회학교 캔디 드라이브** 10월 31일(월)에 있는 Family Fall Fest를 위해 매주 주일 캔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각 부서에 캔디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캔디 드라이브에 참여한 친구들은 달란트를 받습니다. 할로윈 포장지나 땅콩이 함유되어있는 제품은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교사 & TA), 초등부 (2, 3부 교사 & TA)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교육부 교사 기도회** 30일 동안 한마음과 한뜻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금식 기도를 온 교육부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금식기도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모든 교사와 TA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 30일(주일) 오후 12시 45시

◆ **영어 중등부 성탄 콘서트** BYM 중등부에서 Phil Wickham's Christmas "Behold" Christmas Night Concert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0일(토), Anaheim Honda Center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순결 서약식(POP) 뱅킷** 5-12학년까지 74명의 학생들이 4주간의 성경적 성교육을 마치고 순결 서약식 뱅킷을 합니다.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순결한 베델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0월 29일(토) 오전 11시, 유년부실

◆ **멕시코 일일 선교팀원 모집** 멕시코 일일 선교가 11월 5일(토)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모임 일시/장소: 10월 25일(화), 11월 1일(화) 오후 7시, 조이채플  
문의: 고석민 장로 (714)501-7456

◆ **11월호 큐티인 판매** 11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오늘 실내 카페에 들리셔서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순례 권사님(김세진 장로의 모친/김삼순 권사의 시모, 옥소리 선교사의 모친/이바나바 선교사의 장모)께서 10월 17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Barbara Ann Millar(밀라랜드 집사의 모친, 밀라혜경 집사의 시모)께서 10월 17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류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 Only Psalm 1:1-6

Apply to Life



**1.** What do blessed people not do? (Verse 1)

1) Do not walk in ( ).

2) Do not stand in ( ).

3) Do not sit in ( ).

**2.** What do the blessed people "only" do? (Verse 2)

They ( ) in the law of the LORD, and ( )  
on His law ( ).

**3.**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a tree 'transplanted' by streams of water? (Verse 3)

1) It yields its fruit ( ).

2) ( ) does not wither.

3) Whatever they do ( ).

**4.**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wicked people like chaff that the wind blows away? (Verses 4-5)

1) They will not stand ( ).

2) They will not be in ( ).

■ **Song in Response:** I Stand in Awe before the Word